

○○ 회원사 동정

大韓電線



초고압 전력케이블 생산 확대

대한전선(주)(대표: 兪彩濬)가 초고압 전력케이블 생산설비의 대폭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안양공장에 총 공사비 3백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125m, 세계 최고높이의 VCV(수직연속압출가교설비)타워 건설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VCV타워는 높이가 높을수록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는 설비로 이번 증설로 대한전선은 154kV 이상의 초고압케이블에 대한 세계 최고의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2000년대를 겨냥한 500kV급 이상의 초고압케이블 제조를 위한 최첨단 설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한전선은 초고압케이블 생산능력을 연간 5천톤(동량기준)에서 2배인 1만톤으로 끌어올려 최근 활발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수주확대와 이들 국가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확실한 대형 프로젝트 참여에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으며 해외시장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대한전선은 1976년 국내 최초로 154kV급 OF케이블을 개발하여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시대를 열었으며, 154kV CV, 345kV OF케이블 상용화에 이어 급변 설비증설로 500kV급 이상의 초고압케이블 생산능력을 갖춘 몇 안되는 세계 굴지의 회사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한전선은 가입자 光케이블시대를 대비하

여 연차적으로 光케이블생산설비를 증설해 오고 있던 중 대량생산의 이점을 살려 국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투자 계획을 앞당겨 실행에 옮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전선은 싱가포르 최대의 초고압 프로젝트에 세계 우수 케이블사와 함께 응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지난 10월31일 싱가포르전력청(PG)이 발주한 3천1백만달러 규모의 76kV XLPE전력케이블 터키프로젝트에 英國 BICC, 스위스COCO, 日本 미쓰비시·스미토모 등 세계 유명 케이블제조사와 결합, 최종적인 공급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특히 이번 초고압프로젝트가 자격심사기준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싱가포르전력청발주인데다 규모면에서도 최대인 것으로 알려져 제품의 성능면이나 공사수행능력이 세계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선은 향후 싱가포르에서 발생될 대규모 전력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 후발개발도상국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우선권을 점유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싱가포르전력청의 초고압전력케이블 터키공사는 내년 1월부터 오는 '97년 8월까지 20개월에 걸쳐 갈랑베이신의 8개지역에 포설될 예정이다.

電氣工事協會



朴芸熙회장, 파페카 회장 선임

韓國電氣工事協會 박운희(朴芸熙)회장이 대만 타이페이시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95년도 지역회의 및 제9차 아시아·태평양 전기공사협회연합회(FAPECA)이사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전기공사협회연합회」회장에 피선됐다.

지난 11월1일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 8개국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박芸熙회장은 참가 각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임기2년의 회장직에 추대됨으로써, 앞으로 2년간 동 연합회를 이끌어나가는 중책을 맡게 됐다.

FAPECA는 한국, 대만, 홍콩, 호주, 아세안국가 등 10개국 전기공사협회가 민간차원에서 전기공사 관련 기술교류를 위해 모인 단체이다.

연합회 총회에서 「전기공사 일괄입찰제도 및 합작투자환경」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박희장은 『참가국을 비롯, 외국의 전기공사 입찰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기술교류와 수주확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電氣安全公社



전기안전 촉진대회 盛了

조순승 국회통산위원장, 박재운 통산부장관, 이종훈 한전사장, 최동호 KBS부사장, 이연숙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등 전력사업체와 각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 주최로 지난 11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린 제1회 전기안전 촉진대회는 올해 전기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국민들의 전기안전의식 생활화에 앞장선 김주봉 한국공항공단이사장, 서순남주부(경북 김천시) 등 25명을 각각 표창했다.

특히 김정규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지사 과장대리는 3천여명의 직원 중 가장 우수한 전기재해예방활동이 평가되어 '95년도 전기안전왕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에게는 포상과 함께 과장으로 승진하는 특별승진도 뒤따랐다.

이날 전기안전공사직원을 비롯한 전국 전기안전인 일동은 전기안전확보로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의 기수가 되자고 다짐하는 4개항을 결의했다.

한편 홍세기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장은 대회를 통해 『전기안전의 절대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공사 3천여 사원은 안전의식을 더욱 확고히 해 발전소로부터 가정과 공장에 이르기까지 전기가 있는 곳의 전기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사명감 아래 전기재해 없는 풍요로운 국가건설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하자』고 역설했다.

치사에 나선 박재운장관은 『전기설비공사를 담당

하는 공사업체는 착공시부터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하고, 각종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는 엄정하고 철저한 검사를, 일반국민들은 전기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회기중에도 전기안전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조순승위원장은 『규제·법규에 의한 안전은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진정한 자발적인 안전의식, 주인의식으로 선진국 건설의 기틀을 닦자』고 격려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표창> ▲김주봉한국공항공단이사장 ▲조규혁포철광양제철소전력과장, <통산부장관 표창> ▲이학(주)세원군산공장장 ▲배석진 한국방송공사 차장 ▲강길순(서울종로·사진대상) ▲서순남(경북 김천·주부 글짓기대상) 등 25명

韓技



신사옥준공, 첨단설비 갖춰 “제2도약기”

韓國電力技術(주) (사장:張基玉)는 지난 11월 9일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에서 신사옥 준공식을 거행하고 초일류 엔지니어링社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종훈 韓電사장을 비롯, 신기조 前韓技사장 등 내외빈과 관계임직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張基玉 韓技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사옥 준공은 韓技 가족의 새출발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과거 20년은 발전소 종합 설계 기술을 주축으로 한 기술 자립의 역사이며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기술 성숙기로 진입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張사장은 또 『기술 수준, 경영 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국제 경쟁력을 강화, 오는 2000년대에는 세계 시장에서 꿈을 펼칠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번에 준공된 韓技의 신사옥은 부지 2천7백여평에 연면적 1만2천평으로 지상7층 지하3층규모로 건물 운영과 업무처리의 자동화 등 첨단시설을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韓技의 EC화를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사옥 준공은 韓技 창립 20주년을 맞아 명실상부한 성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정표로 볼 수 있다. 韓技는 20년전 공릉동 원자력연구소 건물에서 창립되어 여의도를 거쳐 삼성동 등에서 판집살림을 하다 이번에 용인으로 이주, 속원 사업을 해결하는 도약의 해가 될 전망이다.

新韓電機工業



'95 품질분임조 金賞 수상

新韓電機工業(株)(代表: 朴吉相)가 '95년도 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 전기공업계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8개 분임조가 참가, 지난 10월5일부터 13일까지 전경련회관에서 열띤 경합을 펼친 경진대회에서 新韓電機工業(株) 비둘기분임조는 월등한 기량을 과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품질분임조 활동을 총 결산하는 이번 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쳐 전기공업계와 산업계의 품질경영 활동을 선도하는 변압기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금상을 안은 新韓國電機工業(株)비둘기 분임조는 생산부 조합4조 요원들로 '94년 7월에 「자투리동선 최소화로 원가절감」이란 주제를 선정한 이후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했고 그해 10월에 목표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 거둬들인 유형효과금액은 4백만원에 달하고 자투리동선 감소로 작업장 환경 개선, 주인의식 고취로 원가절감의식 향상, OJT를 통한 기술력 향상 등 무형효과도 거뒀다.

이번 금상의 영예는 회사의 경쟁력을 보다 확고히 하고 완벽한 품질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하나의 결실로 앞으로 더욱 풍성한 수확을 위해 전 사원이 하나가 되어 일로매진해 나가려는 新韓電機工業(株)의 각오가 남다르다. 이의 일환으로 품질분임조 활성화,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등 기업 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설립 이후 꾸준히 견지해 온 수출드라이브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해외시장을 누빌 방침이라고, 최고 경영자

의 강한 기업가로서의 의지를 표명했다.

二和電機工業



디젤다이나믹 UPS시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전문제조업체인 二和電機工業(株) (代表: 裴壽潤)는 축전지 없이도 정전 보상이 가능한 디젤다이나믹 UPS시스템을 개발, 시판에 나선다.

이화전기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디젤다이나믹 UPS시스템은 비선형전류부하나 기동부하 등 특수 부하조건 아래에서도 부하전력을 무순단으로 공급시켜주는 탁월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항공관제를 비롯 은행·병원·연구소 등의 전산처리분야, 계장제어 분야 등과 같은 예민하고 중요한 기기에 연결되어 높은 효율과 신뢰성있는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대용량 병렬운전이 가능하며 비상발전기로도 겸용으로 사용, 상용전원의 정전시 24시간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젤다이나믹 UPS시스템은 고주파 및 단락과 같은 전원장해에 대한 본질적인 보호기능을 기본적으로 내장했으며, 메인 필터에 인덕션 커플을 연결해 라이드쓰로(Ride-Through)기능을 갖도록 했다.

LG產電



콤팩트한 누전차단기 개발

LG產電(株)(代表: 李鍾秀)가 기존제품에 비해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콤팩트한 누전차단기 14종(모델명: HiMEC시리즈)을 개발, 본격 출시하게 되었다.

차단기란 전기회로에서 사고발생시 화재나 또다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회로를 차단해주는 장치로 LG산전은 이 제품의 개발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설비투자 포함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다.

기존의 배전반의 경우에는 선로의 이상전류에 대

해서만 차단해주는 배선용차단기를 이상전류는 물론 누전까지도 차단해 주는 누전차단기로 교체할 경우 외형크기의 차이로 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되는 HiMEC 시리즈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한 제품으로 기존 누전차단기에 비해 외형크기를 반으로 줄여 배선용차단기와 같은 크기로 1:1 교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매자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배전반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형크기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성능면에서는 정격차단전류를 기존 대비 100%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제품은 누전차단 표시버튼을 부착하여 누전차단기의 차단원인인 과전류에 의한 차단과 누전에 의한 차단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기존누전차단기는 전원 및 부하측에 전원을 역접속시 누전사고를 감지하지 못하는 반면 HiMEC 시리즈는 전자회로의 성능을 향상시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더욱 안전성을 높였다.

LG산전이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30AF(Ampere Frame)부터 225AF까지의 소형제품으로 국내는 물론 남미, 동남아 등에 20여가지의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중에 있으며 중·대형인 400AF 이상의 제품은 오는 '97년 출시 예정으로 현재 개발중에 있다.

LG산전은 내년도 저압차단기의 1000억원 매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에 주력함과 동시에 주요납품처인 대형 배전반업체와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신제품 홍보를 강화, 남미 및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LG산전은 HiMEC 시리즈 이외에도 외형크기를 2/3 축소한 배선용차단기도 함께 출시했다.

한편, LG産電은 최근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퍼지제어 인버터용접기를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하고, 내년 6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지난 '94년 6월부터 약 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에 성공한 퍼지용접기는 작업자의 경험과 기능에 의존하는 기존 인버터용접기와는 달리 숙련공의 용접지식을 입력시킨 퍼지제어기를 이용하여 용접시 일정한 ARC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용접전압 및 용접

전류를 자동제어하는 최첨단 용접기이다.

즉 기존 인버터용접기가 작업상태에 따라 작업자 스스로 전압 및 전류를 순간적으로 조절하면서 용접하는 방식이어서 숙련공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반해 이 퍼지용접기는 최고의 숙련공이 갖고 있는 지식에 바탕을 둔 퍼지제어기로 용접을 자동제어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숙련공 못지 않은 용접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최근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국내 용접업계에 초보자와 숙련공간의 기능차이를 없애는 퍼지용접기 개발은 인력난 타개는 물론 용접자동화를 통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거두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제품은 흠, 형체가 일정하지 않은 대상, 협소한 작업공간 등 어떤 작업환경에서도 균일한 용접이 가능하고, 기존 제품보다 용접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용접작업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올해 국내 전체 용접기시장은 약 1,300억원 규모인데 이중 70% 정도를 외국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87년 용접기가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고시된 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데 따른 것인데, 이번에 LG산전이 개발한 퍼지용접기가 기존 인버터용접기와 비교해 가격상승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인버터용접기 시장에서 상당한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퍼지용접기가 점차 인버터용접기 시장의 주력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한 만큼 일본산 퍼지용접기가 국내에 상륙하기 전에 LG산전이 일본에 이어 퍼지용접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국내 용접기업체의 자립기반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LG산전은 첨단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소자를 사용하여 고속제어를 실현한 인버터용접기 2종과 Plasma Cutter 2종 등 신제품 4종을 개발했는데, 지난번 KOEX에서 열렸던 '95 국제용접전'에도 퍼지용접기와 함께 출품한 바가 있다.

향후 LG산전은 퍼지용접기를 포함한 신제품 5종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삼아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이고 있다.